

換率 · 國際金利 상승으로 精油業界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精精油業界는 최근 換率상승에 따른 환차손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조정을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大韓石油協會는 16일 경제기획원, 동자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환율상승 등에 대한 대책 건의서」에서 국내 換率은 지난 12일 현재 달러당 821원 80전으로서 지난 해 12월 13일 原油安定基金 조정때 정부가 84년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여 반영했던 797원 90전에 대비하여 3.0%나 상승했고, 또 국내油價에 10.69%로 반영되어 있는 유전스사용 國際金利도 현재 12% 수준까지 상승함으로써 국내 精油業界는 막대한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石油協會는 지난 해의 경우 약 4백 3억원의 추가부담은 83년중에 해소되지 못하고 84년으로 이월됨으로써 精油5社는 83년 결산시 약 2,450억원에 달하는 정유부문 자기자본에도 불구하고 精油部門에서 겨우 14억원(세후)의 빈약한 성과를 보였으며, 84년 상반기 결산에서도 精油部門에서 11억원의 결손(세전)을 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石油協會는 83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原油도입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됨으로써 정유업계는 자금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지난 8월 1일부터 정부의 조정명령으로 精油社들이 의무적으로 약 6일분에 상당하는 정부지원 비축과 함께 자체자금 부담으로 하루 평균 20일분에 해당하는 원유비축재고의 유지에 따른 자금부담의 가중으로 精油業界의 경영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石油協會는 이와 같은 정유업계의 경영악화가 脫黃시설등에 대한 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장기 석유류 안정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제품가격을 조속히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현재의 국내여건상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동안 발생된 原油費 증가와 유전스 및 외화차입금 換差損 등의 추가 부담을 關稅와 基金의 축소조정으로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

解 說

換率과 油價의 관계

精油産業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변동요인인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原油가격은 일정기간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반면, 換率과 국제금리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精油産業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国内油價에는 약 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油價구조의 특징을 보면, 原油代 관련 비용이 95.7%나 차지하며, 나머지 3.9%는 原油도입 금융비이다.

원유도입 관련비는 대외결제일의 달러貨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되므로 国内油價구조중 95.7%는 환율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換率부분은 精油社의 불가항력적인 통제범위 밖의 비용으로 환율변동폭의 가격변영 이외에 다른 부분의 흡수는 그 폭이 좁아 거의 불가능하다.

또 원유도입 금융비용도 자금의 규모로 보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原油의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매일 약 12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의 확보에는 產油國에서 原油선적, 국내도착, 精油社탱크 입고까지 약 30일, 원유재고기간 약 20일, 제품재고 약 20일, 판매후 대금회수기간 약 30일 등 모두 합하여 약 1백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매일 120억원씩 1백일 합계 1조 2천억원을 產油國에 지불해야 하는 바, 이를 모두 국내 금융으로 충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약 23억달러에 달하는 外貨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차입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換率이 상승하면 원유비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외화채무와 그 이자는 그 만큼 늘어난다.